

2022 년 12 월 18 일 “예수님의 비유(23) 장터의 아이들”(마 11:16-19)

예수님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불통과 단절의 모습을 당시 세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장터의 아이들

아이들은 종종 어른들을 모방하여 놀이를 만듭니다. 당시에 아이들에게 흥미를 끈 장례식과 결혼식은 곧 아이들의 놀이거리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놀이에서는 누군가 피리를 불면 함께 흥을 내며 춤을 추고, 장례식 놀이에서는 누군가 곡을 시작하면 우는 흥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합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 모습을 불신앙의 세대에 비유하십니다.

침례 요한은 금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보고 귀신들려 미쳤다고 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세리들/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시니 저 사람은 마구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세속적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행동은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교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진리와 단절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신앙의 스타일이나 방식이 다른 것을 멸시하고 싫어합니다. 자기 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으로 단절이 일어나면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세대간, 종교집단, 이념집단 같은 곳에서 볼 수 있고, 또 다른 예는 도덕의 단절, 학문의 단절, 문화와 정서의 단절 등입니다. 단절을 맞볼 때 사람은 씩씩하고 서운하고 무기력하고, 소외를 느끼죠. 더 나아가 분노하고 비판하고 적개심도 품습니다.

예수님 세대나 이 세대 속에서 장터의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종종 봅니다.

[2] 신앙의 양면 수용

유대인들은 위에서 말한 요한과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적 모습을 배척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구주를 만나 잔치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신앙의 진수를 보지 못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상반된 모습이 아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허락된 백성의 축복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유대인들은 신앙의 형식화, 화석화로 인해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진리에 대한 공감과 수용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3] 지혜가 한 옳은 일

예수님은 요한 편을 들어주셨고, 결론적으로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하십니다. 지혜(헬: 소피아)란 예수님의 의인화 명사입니다.

당신이 하신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먹고 마시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구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열어주었다는 것이죠. 이 뿐 아니라 11:5 에 열거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구약에 예언되었고, 이제는 성취되어 옳다고 인정받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더해갈수록 유대인처럼 화석화되어서 진리를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본문은 양쪽을 수용하는 통합적이고 균형있는 진리의 사수가 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삶에서 한 걸음씩 충실히 배워가면 삶의 많은 단절과 불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는 진리의 한 편에만 쏠리지 말고 유연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본질을 보는 눈을 주님께 잘 배우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진리는 다각적인 면을 포함합니다. 내가 한 쪽에 쏠려 미처 보지 못했던 진리의 세계가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2. 본문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주님께서 오늘 날 우리 교회와 가정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